

IP활용 게임·콘텐츠 제작 ‘활발’... “비용 절감·수익성 보장”

넷마블, 올 상반기 IP활용 신작 예정
신규 유저 확보·재사용 가능 장점

K-게임 해외진출 성공사례 발굴
문체부 등 IP 연계 게임제작 지원
원작 스토리 훼손 지적 목소리도

국내 게임업계가 성장동력 확보와 수익 창출을 위해 콘텐츠 확보에 속력을 내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IP)을 활용한 게임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콘텐츠 제작에도 적극적이다. 이를 통해 신규 이용자들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올해 상반기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나 혼자만 레벨업:아라이즈’, ‘레이븐 2’ 등 대형 신작을 내놓는다.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은 인기 드라마 IP를 활용해 스튜디오 드래곤과 함께 준비 중인 합작 프로젝트다.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은 탄탄한 시나리오가 뒷받침된 원작 드라마로 유명하다. 또한 방대한 아스달 연대기 세계관 속에서 정치, 전쟁, 건설, 생존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아라이즈’ 대표 이미지.

/넷마블

등 실존하는 사회를 구현해 초대형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라는 점이 특징이다.

전 세계 누적 조회 수 142억회를 기록한 글로벌 인기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 IP로 제작 중인 액션 RPG(역할수행 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아라이즈’도 상반기 기대작으로 손꼽힌다. 넷마블은 현재 나 혼자만 레벨업 애니메이션 제작 위원회에도 투자해 참여하고 있다.

전 세계 흥행 미국 드라마인 ‘왕좌의 게임’을 기반으로 한 게임 개발에도 착

수했다.

국내 OTT업계에서 큰 흥행을 일으켰던 좀비물인 ‘킹덤’도 게임으로 출시된다. YJM게임즈는 지난 5일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IP를 활용해 ‘킹덤: 왕가의 피’를 출시했다.

이렇게 게임업계가 콘텐츠 발굴에 속력을 내는 이유는 마케팅 및 개발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수익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만화를 기반으로 만든 넥스 ‘바람의 나라’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가 그 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사에서 IP가 곧 재산이라는 말이 있는 이유다. 탄탄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사들이 이를 통해 게임, 웹툰, 드라마 등을 끊임 없이 창출하는 데는 마케팅비와 초기 개발이라는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익성도 보장된다. 이를 통해 기존 유저들을 안착시키고 신규 유저들을 확보할 수 있다.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와 소통하는 것도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P는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PC 버전, 모바일, 크로스플랫폼, 콘솔 등 다양한 형태로의 재개발이 가능하다. IP를 타 게임사에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있다. 이처럼 IP를 활용한 수익 창출 방법은 수없이 많다. 게임사들이 IP 개발에 총력을 다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 같은 트렌드를 인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K-게임의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웹툰 IP 연계 게임 제작지원(글로벌 웹툰 게임스)’을 추진한다. 국내 게임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지난달 29일 콘진원은 전국 12개 지

역 글로벌게임센터와 함께 오는 26일까지 K-웹툰 IP를 활용한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에 총 5개 기업을 모집한다. 중소 게임기업의 사업 참여를 통해 글로벌 웹툰 IP를 보유한 네이버웹툰과 글로벌 앱마켓 플랫폼인 구글플레이와 협력해 세계적인 콘텐츠 IP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일각에선 게임사들이 IP를 활용한 콘텐츠 발굴에 속력을 내고 있는 상황에 원작의 기조는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IP를 활용한 웹툰 및 드라마가 원작 시나리오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면적인 요소를 탄생시켜야 한다는 것. 원작의 명성에 비해 흥행하지 못한 게임을 예로 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유미의 세포, 여신강림 등이 탄탄한 원작임에도 불구하고 흥행하지 못한 데에는 이용자들의 지식이 높아졌을 뿐더러 원작의 형태가 유지됐으면 하는 유저들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결국 원작의 스토리와 시나리오가 중요하다. 그만큼 게임사들의 고민도 늘어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대한항공, 엔진정비·MRO사업 역량 확충

(수리·정비·개조)

인천서 신 엔진 정비 공장 기공식
총 5780억 투입해 클러스터 구축
정비 가능 엔진 360대로 늘어나

대한항공이 항공기 엔진 정비 역량을 확충하고, 항공 MRO(수리·정비·개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인천 영종도 운북 지구에 엔진 정비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대한항공은 14일 오후 인천 중구 운북동 부지에서 신 엔진 정비 공장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기공식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임직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정비 공장은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로, 연면적은 14만211.73㎡다. 공사에는 총 5780억원을 투입한다. 시공은 코오롱글로벌이 맡는다. 위치는 대



14일 오후 인천 중구 운북동 부지에서 열린 대한항공 신 엔진정비공장 기공식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가운데),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시삽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 이윤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뉴스

한항공이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엔진 시험 시설(ETC) 바로 옆이다.

대한항공은 부천 공장에서 항공기 엔진 정비를, 영종도 운북지구 ETC에서 엔진 출고 전 최종 성능 시험을 해왔다. 운북지구 엔진 정비 클러스터에서는 항공기 엔진 정비의 시작과 마무리를 한 곳에서 소화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의 항공기 엔진 정비 역량도

강화한다. 정비 가능한 엔진 대수가 연 100대에서 360대로 늘어나고, 다룰 수 있는 항공기 엔진 종류도 다양하다.

이번 엔진 정비 클러스터 구축으로 대한항공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항공 MRO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대한항공 엔진 정비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관련 인력 고용이 총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

카카오 준신위, 경영진 선임 논란에 권고

“유사평판 리스크 사전 예방 등 마련”

카카오의 외부 감시 독립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가 카카오 경영진 선임에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준신위는 14일 “카카오 신규 경영진 선임 논란과 관련해 카카오에 유사 평판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같은 권고는 정규돈 카카오 CTO(최고기술책임자)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에 따른 조치다. 앞서 정진사 새 대표 내정자는 지난달, 카카오뱅크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70억원대의 차익을 거둔 정규돈 카카오뱅크 전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카카오 CTO로 내정할 바 있다.

하지만 정규돈 내정자는 ‘떡볶이 논란’을 일으킨 인물로 카카오가 강조한 ‘인적 쇄신’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정 내정자는 카카오뱅크 상장 직후인 2021년 8월 스톡옵션을 행사해 70억원대 차익을 거둔 바 있다. 이를 두고 내부서도 회부가 쇄신 의지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논란 인물을 선임한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준신위 측은 “카카오의 새 리더십이 사회의 눈높이에 맞춰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권고는 지난달 20일 준신위가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회복’ 등 3가지 의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한 이후 두 번째 권고다.

/구남영 기자

두산로보틱스, 복강경 수술보조솔루션 활용 ‘성공’

(췌)립-부산대 진상록 교수팀 개발

두산로보틱스가 협동로봇을 활용한 복강경 수술에 성공하면서 의료현상 상용화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대구 구병원에서 진행된 담낭 절제 수술에 복강경 수술보조솔루션이 투입돼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복강경 담낭 절제 수술은 10mm 내시경 카메라를 배꼽을 통해 복강에 삽입

한 후 수술도구를 조작하며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피부를 약 1cm 정도 절개해 수술도구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투관침을 삽입하고, 3~4개의 절개 부위로 외부에서 몸 안을 관찰할 수 있는 영상장치와 도구를 투입해 수술을 진행한다.

이번에 활용된 복강경 수술보조솔루션은 두산로보틱스의 협동로봇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전문 SI 기업 (췌)립과 부산대 기계공학과 진상록 교수팀이 공

동개발한 것으로, 협동로봇에 내시경 카메라가 탑재돼 있다.

이 솔루션은 3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고, 협동로봇 6개의 각 축에 조인트 토크 센서를 탑재해 섬세하고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다.

기존에 2~3명의 수술 보조인력이 장시간 내시경 카메라를 들고 있어야 하는 힘든 작업을 협동로봇이 대신함으로써 의료현장의 노동 강도를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AI로 냉장고 전력절감 강화

‘비스포크 냉장고’ 신제품 출시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술로 에너지 절감을 강화한 ‘비스포크 냉장고’ 신제품을 14일 출시한다.

2024년형 비스포크 냉장고는 전 모델에 ‘차세대 디지털 컴프레서’와 ‘AI 절약 모드’를 적용해 소비전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디지털 컴프레서는 모터 운전 시 관성 이용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에너지를 절감하면서도 성능을 확보했다. 삼성전자는 이 차세대 디지털 컴프레서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해 주는 평생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스마트싱스 기반 AI 절약 모드를 더욱 강화했다. 냉장고가 사용량을 예측하고 조절하는 기능으로 2단계에 걸쳐 맞춤 절전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을 실사용 기준 최대 23%까지 절감할 수 있다.

비스포크 냉장고 패밀리허브 모델에는 식재료를 관리할 수 있는 ‘AI 비전 인사이트’ 기능이 탑재됐다.

이는 냉장고 선반에 넣고 빼는 식재료, 도어 쪽에 보관하는 식재료를 내부 탑재 카메라로 촬영하고 종류를 인식해 푸드 리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비전 AI와 온디바이스 AI 기술 기반으로 신선 식품 33종을 분류하고 매칭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